

결혼이주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비교 연구¹⁾ -명절문화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Married Immigrant Women's Life Culture for improve welfare

박인아, 최경희, 김서영(호남대학교)

차 례

1. 서론
2. 연구의 필요성
3. 생활문화 비교: 명절문화
4. 결론

■ keyword : | 생활문화 | 결혼이주여성 | 명절문화 |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의 다문화 속도를 급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1992년 419,774건에서 2011년 329,08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결혼 건수는 1992년 5,534건에서 2011년 29,76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2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13.5%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후 9~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으나, 2007년에는 6.7%, 2011년에는 10.0%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이 전체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 0.3%였으나 2011년에 7.3%로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족

의 부부갈등은 성격차이, 생활방식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한편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동수단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결혼 부부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 문화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의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을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타문화의 의미, 특성, 가치를 이해하고 타문화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명절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생활문화를 고찰하고 한국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문화란 생활과 문화의 합성어이다. 우선 생활이란,

1) 본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 학술연구지원비로 연구된 것 중 일부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 생존을 포함한 행위의 총화를 말한다(지영숙 외, 1998). 그리고 인간의 일상적 행위를 통합한 체계로서 인간의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인간과 그 환경과의 관계에 있는 외부 과정과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는 감정, 정서 등 내면 과정의 두 과정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정영숙 외, 1991)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문화는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된 말인데,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이 적응하기에 좋은 것으로 만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같은 집단에게 공통적인 문화요소가 있을 때, 문화의 큰 유형이 형성되고 다시 그 안에서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문화란,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지배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신념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상, 분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문화는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한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체이고, 이들 구성원들은 일정한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공유한다(김양희 외, 2011). 따라서 생활문화란, 생활문화란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한 사회가 공유하는 상징과 가치 체계를 통해 세대를 통해 계승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의·식·주의 가족생활이 영위되는 장에서 관찰될 수 있다(옥선화·진미정, 2011). 한편 생활문화는 그 사회의 여러 다른 문화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조홍윤, 2003). 이러한 생활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문화발전의 공통성을 탐색케 하고, 부동의 문화계통간 비교연구를 통해 민족문화의 독특성(차별성)을 포착하게 하고, 인류문화의 역사적 현상 가늠척도를 제공해 주며, 세계적 안목의 민족문화 재인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이정규, 1997: 87).

1.2 연구의 목표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매우 극소수이다. 논문의 경우 송복희(2012)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논문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의, 식, 주, 가

정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저서로 최명민 등(2009)은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등의 인구, 정치사회, 경제, 문화와 종교, 교육제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양희 등(2011)은 아시아지역의 가정생활문화를 결혼문화와 가족문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주현과 최덕경(2011)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신국 중 14개 국가에 대하여 인구, 기후, 종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인구나 종교, 교육제도, 정치사회 환경 등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생활문화 영역별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들 문화와 함께 발전하는 미래의 한국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연구진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킨다. 둘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생활문화를 한국의 문화의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른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문화갈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해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문헌연구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한국 문화와 결혼이주여성 주요 출신국가별 생활문화 비교를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통해 국제결혼 현황과 결혼이주 출신국 분포를 확인하고 연구의 범위를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한정하였다. 2012년 1월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이 2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23.9%, 필리핀이 6.7% 순이었다(행정안전부, 2012). 다

음으로 선행 연구논문과 저서를 토대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본 연구진들의 전공을 고려하여 생활문화를 의생활, 식생활, 건강생활, 자녀양육, 미용 그리고 명절문화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각 영역별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생활문화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생활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문항을 구성하였다.

2.2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방법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상호작용과 그 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하여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유태균 외 역, 2004; 조용환, 1999).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각 출신국별 이주여성 1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심층면접조사 항목을 수정하고, 심층면접대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지 1년 이상 10년이 넘지 않은 여성을 출신국별로 3명씩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주기간을 고려한 이유는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출신국의 현재 문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출신국별로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이 있을 경우 통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진과 결혼이주여성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양해를 얻어 면접내용을 녹음하였다. 1회에 3명의 연구진과 3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문화 중 명절에 대한 질문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면접의 진행은 한 명의 연구진이 1명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대일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이 끝나면 해당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연구진에게로 이동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한 생활 문화 중 명절에 대한 질문문

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모국의 명절문화(설, 추석)에서 가장 유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까?
- 귀하가 한국에서 명절문화(설, 추석)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묘를 가는 문화가 있습니까?
- 세배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 한국의 명절문화(설, 추석)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과 모국의 결혼문화에서 가장 유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학술 세미나

본 연구를 위해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심층면접조사 방법과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생활문화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활문화연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어 지는 생활문화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생활문화 비교: 명절문화

본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생활문화에서 설, 추석 같은 명절문화와 결혼문화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 6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와 문헌 및 연구자료 등을 근거로 참여자의 출신국과 한국의 명절생활과 결혼생활 문화를 비교하였다.

3.1 설과 추석 문화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정의한다. 한국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한국의 대표명절인 설은 주로 음력설에 많이 지내며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한국 명절은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여 차례 음식을 장만하며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다녀온다. 설에는 차례를 지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부모님, 친지 어른

등)에게 세배를 하며 윗사람은 세배를 받고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준다. 그리고 떡국을 먹으면서 전통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추석은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두산백과사전, 2013). 가족, 친지가 모여서 송편을 만들고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다녀온다. 그리고 전통 놀이를 함께 하면서 저녁에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명절인 설과 추석을 참여자 6인의 출신국과 비교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출신국과 결혼기간, 자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구분	출신국	결혼 기간	자녀	비고
참여자 1	필리핀	약 10년	아들 2	한국남편과 사별
참여자 2	필리핀	약 7년	딸 1	
참여자 3	베트남	약 3년	아들 1 딸 1	
참여자 4	베트남	약 4년	딸 2	한국남편과 이혼
참여자 5	중 국	약 3년	딸 1	
참여자 6	중 국	약 5년	아들 1 딸 1	결혼 후 중국 살다가 옴.

1) 중국

참여자 5, 6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중국의 설은 한국의 설과 많이 유사하다. 민족 대이동 부터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전통 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른에게 세배를 하며 세뱃돈을 주는 명절생활문화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추석은 설 명절처럼 크게 지내지 않고 가까운 가족끼리 가볍게 지낸다고 한다.

설에는 한 달 정도 쉬어요 (중국 참여자 6)

만두에 돈 넣어서 먹어요 이도 부러지고요 (중국 참여자 5)

도시는 차례를 잘 안 지내요 시골은 지내는 집도 있지만요 맛있는 음식 먹고 12시에 세배는 해요 세배하면 돈도 주는데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줘요 (중국 참여자 5, 6)

추석에는 월병을 먹어요 추석에는 가족이 모이는 가까운 가족끼리만 모여요 차례 안 지내요 성묘도 안가요 (중국 참여자 6)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 집안일을 한다고 한다. 도

시에서는 대부분 차례를 지내지 않고 시골에서도 차례를 지내는 집과 지내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출신국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차례를 지낼 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큰며느리라서 차례 지내는데 괜찮아요 시부모님 따로 살지만 시어머니가 같이 해요 남편 가끔 도와 주지만 명절 때는 시부모님이 뭐라고 해서 안 도와 준다 (중국 참여자 5)

장은 시부모님이 다사와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상 차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님 같이 살아요 2층 사는데 시어머니 일찍 일어나서 깨우러 와요 (중국 참여자 6)

2) 베트남

참여자 3, 4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베트남의 설은 가족 및 친지가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전통 요리를 먹는다. 설전에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새해 맛을 준비를 하면서 목은해를 보내게 된다. 설날 아침에 아이들은 설빔으로 마련 해 준 새 옷을 차려입고 부모나 친척에게 인사를 드릴 때 세뱃돈을 받게 된다. 베트남인 들은 설날 아침을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때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일 년간 매우 심한 어려움과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높은 인품이 있는 분이나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을 초대한다. 정월 초하루에는 남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설날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날 밖에 나가지 않는다. 추석은 우리와는 달리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따로 음식상을 차려 주었던 것을 유래로 중추절이 어린이날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아, 각종 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한다(주베트남 대사관, 2008).

아침에도 차례지내고 저녁에도 차례지내도 괜찮아요 명절 차례는 밤 12시에 지내요 (베트남 참여자 4)
베트남은 산에 안 올라가요 성묘 안가요 (베트남 참여자 3)

베트남은 세배 안 해요 돈은 주지만 세배는 안하고 인사만 해요 (베트남 참여자 3, 4)

세배 돈은 어른이 아이에게 주고 좋은 말해요 (베트남 참여자 4)

베트남 추석은 아이들만 놀아요 차례 안 해요 (베

트남 참여자 3)

설에 반쯤 먹고 추석에는 월남 짬과 추석도 뽕쫄투
빵 있어요. (베트남 참여자 3, 4)

베트남에서는 여자가 음식을 장만을 한다고 한다. 한국처럼 많은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한다. 시부모님과 시장에 가서 장보는 일은 재미있고 잘 도와주셔서 스트레스도 없다고 한다.

성묘 가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것은 한국음식 만들고 일 많아서 힘들어요. 남편은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얘기만 봐줘요. (베트남 참여자 3, 4)
베트남은 음식 많이 만들지 않아요. 음식 만들 때 여자만 해요.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베트남 참여자 3)

시아머니랑 시장 갈 때 재미있어요. 베트남은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어요. (베트남 참여자 4)
스트레스 없어요. 시아버지 말 많이 하지만 괜찮아요. 다 잘 도와줘요. 시부모님 스트레스 없어요. (베트남 참여자 3, 4)

3) 필리핀

참여자 1, 2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필리핀의 11월 1일 만성절(All Saint's Day)이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다. 성묘도 드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 성묘도 가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주로 전통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성묘 가서는 촛불과 꽃을 장식하며 기도를 한다고 한다.

저녁에 시장가서 장봐가지고 저녁에 가족끼리 음식 만들고 추석 같아요. 11월 달에 1일, 추석이 있어요. 그냥 음식만 만들어서 같이 먹고 “다른 집 마다 틀려요” “제사하는 사람하고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구요” 집마다 틀린 거예요. 차례도 해야지. 초도 있고 사진도 있고 아니 사진 말고 숭배하고 기도하고 음식 그냥 나두고 가고 죽은 사람의 영혼와가지고 먹고 가고. (필리핀 참여자 2)

아, 저기 산소도 가요. 필리핀도 그렇게 차례지내고 산소도 갔다가 저기 기도해! 기도하고 가서. (필리핀 참여자 1)

우리 마찬가지로 다 떨어져 가족들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면 다 같이 먹고, 놀고 죽은 사람 인사하고 해요. (필리핀 참여자 1, 2)

설 1월 1일 있어요. 추석은 그대로 있어요. 11월 1일예요. (필리핀 참여자 1)

필리핀에서는 남자여자가 같이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 일도 같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참여자들은 한국 음식 만들기에 서툴러서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주로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든 생활은 주위환경 보다는 추운 겨울날씨가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을 때가 힘들다고 한다.

보통 남자 같이해요. 필리핀은 음식 남자여자 같이 해요. (필리핀 참여자 1, 2)

집안일 잘못해서 동서랑 시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같이해요. (필리핀 참여자 2)

처음에는 한국음식 잘 몰라서 힘들어요. 매일 제사 있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리 잘 못해서 맨날 설거지만해요. (필리핀 참여자 1)

시아머니님이 도와주셔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추운 날씨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시부모님 스트레스 별로 안겪어요. 남편이 최고 스트레스예요. ㅎㅎ 돈이 없어 조금 힘들어요. (필리핀 참여자 1, 2)

4. 결론

먼저 명절생활 문화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필리핀은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에 성묘도 드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 성묘도 가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주로 전통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성묘 가서는 촛불과 꽃을 장식한다. 비교적 격식을 덜 차리고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베트남과 중국의 설은 한국의 명절 문화와 거의 유사하지만 추석 명절은 한국보다 간소하고 베트남의 추석은 완전히 다른 명절로 어린이날과 비슷하다고 한다.

표 2.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과 한국의 명절 및 결혼생활 문화 비교

생활문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명절 문화	설	휴일	차례, 전통 요리, 가족 & 친인척 모임, 인사, 세뱃돈	민족대이동, 고향방문, 성묘, 전통놀이, 차례 (유구), 세뱃돈	민족대이동, 고향방문, 성묘, 전통놀이, 차례, 세배, 세뱃돈
	추석	가족과 친인척 모임, 성묘, 전통놀이	어린이날과 같은 형태	가까운 가족, 전통음식(월병)	민족대이동, 고향방문, 성묘, 전통놀이, 차례, 전통음식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국 참여자 6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면 명절문화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추운 한국의 날씨 적응과 경제적 안정이 어렵다고 한다. 연구 초반 심층 인터뷰 전에는 명절문화를 접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오히려 날씨가 추울 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일찍 일어나서 명절 차례를 지내거나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 할 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참여자 6인들의 출신국의 날씨가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는 나라여서 그런 것 같다. 한국 며느리들의 고부간 스트레스가 힘든 생활인데 결혼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출신국의 생활환경의 차이가 불편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표출되었다. 시부모님이 잘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고 하니 연구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전반적인 생활문화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묻는 인터뷰에서는 참여자 6인 모두 ‘별로 없다’고 답하였고 ‘아기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스트레스다.’라고 한다. 아이가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집이 좁아 이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돈은 나라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기혼 여성들의 공통된 스트레스일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 초반의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생활문화에서 설, 추석 같은 명절생활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로 필리핀, 베트남, 중국으로 한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문화와 한국의 생활문화를 비교하여 추후 결혼이주 여성의 복지 향상 연구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출신국의 생활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생활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복지 향상 연구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서로의 명절 생활문화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가족들 모두 상대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크다고 한다. 문화의 결합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질적 문화가 맞부딪치는 데서 오는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하명타임, 2005).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의 명절생활문화를 비교한 연구를 기초로 상대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좀 더 나아가서 생활문화에 대한 선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며 결혼이주여성의 복지 향상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1]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9.
- [2] 권미경(2009). 여성결혼이민과 한구사회 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한국학술정보(주).
- [3] 권복순,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4] 김미중, 김태임, 권윤정(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행위와 피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323-332.
- [5] 김양희, 전세경, 문영소, 박정윤, 장은정, 김예리, 김효민, 백선아, 안진경 (2011). 가족과 생활문화. 양서원.
- [6] 김영순, 웅웁 반 히에우 외(2013).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북코리아.
- [7] 김유경, 조애저, 최현미, 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 [9] 박주현, 최덕경(2011).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창지사.
- [10] 박지은(2008).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증진 실천행위와 적응유연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 [12] 보건복지부(2009).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 [13] 보건복지부(2010). 2009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

- 영수, 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15] 송복희(2012).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옥선화 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4호: 67-76
- [17] 유태균 외 17 역(2004).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해와 적용, 남남출판.
- [18]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 [19] 통계청(2011). 『2010년 혼인통계 결과』 .
- [20]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1] 행정안전부(2012).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 [22] Aday, L. A., Andersen, R.(1975). Access to medical Care. Ann Arbor, Michigan,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23] Brown, W. M., Consedine, N. S., & Magai, C. (2006). Time spent in the united States and breast cancer screening behaviors among ethnically diverse immigrant women: evidence for acculturation?. Journal of Immigrant Minor Health, 8(4), 347-358.
- [24] Garces, I. C., Scarinci, I. C., & Harrison, L. (2006). An examina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and healthcare seeking among Latina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Minor Health, 8, 377-385.
- [25] Gelberg, L., Andersen, R., & Leake, B. D.(2000).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pplication to Medical care use and outcomes for homeless people. Health Services Research, 34(6), 1273-1302.
- [26] Han Y.H., Shin W.S., & Kim J.N.(2010)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 [27] Jeong M.J., Jung E.K., Kim A.J., & Joo N.M.(2012) Nutrition knowledge and need for a dietary education program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yeongbuk region. J. Korean Diet Assoc. 18(1).
- [28]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2013.
- [29] 두산 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013.
- [30] 베트남 대사관, 구정관습, 생활정보, <http://vnm-hanoi.mofa.go.kr/>, 5. 27, 2008.

저자 소개

● 박 인 아 (In-A Park)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현재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다문화, 가정폭력

● 최 경 희(Kyoung-Hei Choi)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의류학과 (의류학사)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의상 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학박사
- 현재 :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드레이핑, 니트디자인

● 김 서 영 (SeoYoung Kim)

정회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Studio Art: Intermedia, B.A
- Texas A&M University-Commerce, M.S
- 현재 : 호남대학교 문화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